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土)



구름조금
21 / 30℃

3(日)



구름조금
21 / 30℃

News

- 기아차 파업 타결 ②
- 뱃살 탈출 도전기 ③
- 오늘밤 이란축구 꺾는다 ⑧



Jeollado

- 그 사람-최영철 前의원 ⑦

Entertainment

- 개그맨들의 변신 ⑧
- 주목...작지만 큰 영화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마 ⑬



이정재씨가 광주시 서구 월드컵 경기장을 돌고 있다. 이씨 등 전국 1만58명이 '우주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최현배기자 choi@

“한국 첫 우주인 티켓 내가 잡겠다”



광주·전남 217명 오늘 기초체력평가

바로 오늘이다. ‘우주인’이란 어린 시절 꿈을 실현시킬 첫 단추를 꿰는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선발을 위한 체력테스트가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광주·전남 217명을 포함, 전국적으로 1만58명이 참가한다. 3만6천206명의 응시자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전남통계청 이정재(29)씨도 그 중 한사람이다. 그는 한국 최초 우주인으로 러시아 가가린 우주비행사훈련센터에서 우주 유영 훈련을 하고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 우주 정거장으로 날아간다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다.

대학생·공무원·50대 교사도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미지의 공간, 우주가 마냥 좋았다. TV에서 ‘은하철도 999’를 보면서 주인공 철이와 우주로 가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어린 왕자’를 읽고 난 뒤 ‘내 별’을 찾는다며, 밤마다 별을 헤아리던 기억도 생생하다. 이씨는 그런 기억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 속 한켠에 묻었다. 정말 꿈 같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이다.

20년 가량 지났을까.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을 뽑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씨는 지원서를 냈고, 기초체력측정에 대비하며 운동을 시작했다. 이씨는 “꿈이 실현될 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우주인 응모자들이 2일 광주과학기술원 후문 도로에서 3.5km 달리기 시험을 치른다. 만 19세 기준을 갖 넘긴 10대 대학생, 20대 공무원, 육군 장교, 30대 연구원, 학원장, 40~50대 교사 등 나이도, 직업도 다양하다.

문성배(31·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씨는 사전 답사를 한다며 직장 뒤쪽인 달리기 테스트 장소를 10차레나 돌았다. 서강대 물리학과를 졸업, 광통신 연구원으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동경은 사라지지 않았다. 문씨는 “별이라는 대학 전문반에서 운하·혜성을 보고 성단을 관측한다며 망원경을 들고 소백산 천문대를 돌아다니던 버릇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42·전남과학고 지구과학 담당교사)씨는 흑백TV를 통해 봤던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잊지 못한다. 김씨는 “언

젠가 쓸 날이 온다’고 버리지 못하고 남겨 두고 싶은 것이 있지 않느냐”면서 “과학고 제자들에게 ‘여기는 우주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광활하다’고 말하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우주여행 생각만으로 즐거워요”

울트라마라톤 완주 기록을 갖고 있는 윤춘식(51·전남여고 교사)은 “인생에서는 색다른 것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 보디빌딩 선수인 고재민(29)씨는 “3년 전 광주에서 여성으로는 처음 보디빌딩 선수로 나선 것도, 이번 우주인 선발에 나선 것도 도전”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에서 홍보방송을 하는 박혜현(여·26)씨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좋은 추억이다”고 말했다.

19세 이상인 나이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한 강나루(19·전남대 신소재공학부 1년)군은 “대학 전공도 우주선 기체와 관련된 학과를 택했다”며 “반드시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들의 꿈이 설사 이뤄지지 못하면 어떤가. 꿈을 향한 열정과 열매인, 그리고 1만분의 1이라는 확률만으로도 충분히 즐겁지 않겠는가.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 교육부총리 김신일 교수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로 김신일(65·사진)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지난 달 7일 김병준 전 부총리가 물러난 후 25일만이다.

<프로필 2면>

김 부총리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노 대통령이 유럽·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오는 20일을 전후해 정식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 후보자는 청주고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40년간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육개혁과 교육자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장,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교육부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수석은 발탁 배경에 대해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김신일 내정자

쌓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온 학자 출신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개혁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큰 줄기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또 “김 부총리 후보는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확대하며 대학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강화하는 등 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갖추고 있다”며 “교육 전문성과 교육 개혁 소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에서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육성해 나가는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

광주 어린이나라 어린이집 원생들이 1일 광주지하철 금남로 5가역에서 개막된 제51회 호남예술제 입상작 전시회장을 방문,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림을 감상하고 있다. 유치부 우수상 65점을 포함 모두 600여점이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속하고 정확한 은행
동양지축은행
Tel. [062] 226-0180

100년의 사람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완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최속무용 김동완